

## 개방화와 대학 교육의 미래상

한 준 상 | 연세대 교육대학원장

이 시대 대학을 논하게 만드는 화두는 대학의 개방화이다. 대학의 개방화는 평생 교육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대학의 개방화는 대학의 문을 연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대학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다. 대학의 개방화가 가속화 되면, 지금과 같은 거대 캠퍼스는 20~30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 미니 대학이 지역 사회마다 들어서게 된다. 미니 대학은 지역 주민의 평생 학습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의 개방화는 대학 교육이 더 이상 소수를 위한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학습 터이며 평생 교육의 활동임을 알리는 상징이 된다.

물론, 지금과 같이 각 나라들이 취하는 대학 개방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개방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로, 대학의 개방화가 모든 나라에 있어서 획일적이거나 혹은 단선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의 개방화와 대학 교육 부문에서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지식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학습자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깊다. 여러 나라들이 처한 대학 문제를 단순하게 요약할 때마다, 사회적인 불안정이 오히려 대학의 개방을 반대 방향

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점만큼은 아주 분명하다. 대부분 동유럽 대학들은 대학의 개방보다는 전통적인 엘리트층을 위한 폐쇄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한다.

둘째로, 대학의 개방화를 대학의 “미국화”로 보는 것 역시 대학의 개방화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다.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대학의 개방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모두 미국의 대학처럼 개방화를 추진해야 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식의 대학 개방화 형태는 오히려 예외적인 대학 개방 형태에 속한다. 일부 미국의 엘리트 대학이 취하는 대학의 개방화 경향을 고려한다면 일부 미국 대학들의 대학 개방 형식은 오히려 일탈적이다. 어찌 보면 이들 대학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고객 유치의 한 방편으로서 학습자를 활용할 뿐, 학습자의 교육적 욕구나 학습자의 이익에 둔감하다. 그런 일에 익숙한 대학들은 성인 학습을 위한 대학의 개방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포기하고 있기마저 하다. 전통적인 미국의 대학들은 오히려 다른 선진국의 대학에 비해 더욱더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편이다. 대학 개방의 변화에 있어서 미국보다 보다 앞선 국가들이나 대학들은 북유럽 국가에서

보다 더 광범하게 나타난다.

## I. 대학의 개방과 대학 기능의 변화

서구 대학에 있어서 대학 교육의 개방화는 일반적으로 사회 변화의 내용과 속도와 맞물려 있다. 대학 개방을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3가지이다. 그 첫째는 평생 학습의 보편화 경향이고, 둘째는 대학 인구 조류의 변화이며, 마지막 셋째는 지식의 디지털화 경향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때 크라크 커 총장이 이야기했던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커 총장이 이야기했던 대학의 연구, 봉사, 교육이라는 3대 기능을 대학의 중요 기능이라고 내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의 기능은 이제 대학보다는 대학 이외의 다른 연구 기관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각종 첨단 연구소는 그들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물론, 대학과의 산학 협동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 한 가지 염두에 둘 사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발명이나 과학적인 업적은 더 이상 대학만의 전유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사 기능 역시 대학 교수만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봉사 기능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기에, 대학 교수들의 사회 봉사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대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내세울 만한 기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을 대학의 교수의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마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대학의 교수 기능 역시 평생 학습 시대의 실현에 의해 더욱더 빠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유명한 서구의 대학일수록 그 대학의 인구는 성인 학습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미 대학 인구의 68% 정도가 장년이나 노년의 학습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은 18세 짜리 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진학처라기 보다는 성인들의 평생 직능 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과 평생 연구 기관으로 이미 변모한지 오래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 앞서 나가는 서구의 대학들은 모든 이를 위한 고등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원 교육도 그 내용과 형식이 이미 성인 학습자의 연구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대학원 이외의 각종 성인 교육 프로그램 역시 강화되고 있다.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각가지 학습 시설과 연구 시설을 앞다투어 보강하고 있다.

이제 고교생의 대학 유치는 대학의 일차적인 기능이기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을 주요 입학 자원으로 겨냥하는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대학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추세에 뒤따라 가는 대학들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 II. 에지케이션 시대의 대학 개방화

대학의 개방화는 교육의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대학의 개방화를 총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 바로 에지케이션(edgeucation)이다. 에지케이션은 학습의 개인화와 학습의 자율화를 지칭하며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단어이다. 동시에 에지케이션은 모든 이를 위한 대학 교육을 촉진하는 '학습 아나키즘(Learning Anarchism)'의 개념이기도 하다. 에지케이션이라는 말은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엣지(Edge)에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Education)을 합성한 단어이다. 에지케이션이라는 말은 기존의 에듀케이션

(Education)과 차별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새로운 개념으로서 에지케이션은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사이버 교육 매체를 동원하는 교육 환경으로 구성된다. 에지케이션은 지금까지 대중의 교육 파시즘의 대명사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평생 학습의 대안과 같다. 이런 에지케이션은 기존의 에듀파시즘에 대한 새로운 대안 교육을 창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쌍방향 온라인 대학(Interactive universities) 등이 바로 그런 예인데, 바로 이런 평생 교육 활동들은 그리스 시대의 아고라의 기능을 현대화시킨 것과 같은 새로운 학습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모든 이를 위한 대학 교육의 새로운 형태인 에지케이션은 평생 학습망의 전국화에 의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학습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이를 위한 토론의 학습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전자 아고라”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국토의 학습화와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을 위한 홀로닉 네트워크 교육 경영과 그것을 위한 에지케이션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것이 바로 학습 정보 교환(ALX: America's Learning eXchange) 체제 같은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자료나 고용 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설한 일종의 디지털 정보망이다. 미국의 평생 학습 정책은 지식 기반 경제에 대비해 평생 학습·평생 고용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부가 가치를 높여려는 멘토벤처 즉, 지식 중심 사회에 부응하는 조처이기도 하다.

이런 대학의 에지케이션은 기본적으로 “Campus-bounded” 교육을 “Campus-based” 학습으로 바꿔 놓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교육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대학이라는 캠퍼스는 단지 학습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장소이기에 오히려 의미 있는 학습은 대학의 담장을 벗어나야 가능

하다는 생각으로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런 현상은 대학 교육의 쓰임새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추세와 대학 인구의 조류가 성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 Ⅲ. 대학의 성인 학습 기능

대학 인구의 70%가 이미 24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다. 대학 인구의 조류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 기능은 성인 학습자들의 직능 개발이나 평생 학습을 위해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분화되고 있다. 그들이 발휘할 새로운 전문적인 학습 기능이나 역할들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그 첫째 학습 기능은 향상 기능(improvement)이며, 그 둘째는 실행 기능(implement)이고, 마지막 기능은 통합 기능(integration)이다. 이런 에지케이션의 평생 학습 기관들로서의 대학들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학습 필요성이나 요구가 자신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쓰임새를 높이는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을 익힌다든가 새로운 방법을 익힘으로써 과거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낫게(Doing things better)’를 기본 학습 목표로 삼고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 역시 학습의 통합 기능을 강조하는 평생 학습 기관이 강조하는 형식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즉, 배우고 익힌 지식이나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거나 만들어 내는 벤처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일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북구의 스웨덴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은 대학 평생 학습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스웨덴 수상

“

미니 대학 설립은 역시 대학의 개방화와 촉진하는  
사회 봉사 기능의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미니 대학 운동은 학습자들에게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학습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게 만드는 사례이다.

”

Plamer가 1963년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를 선언한 그 때부터 대학 평생 학습 시대를 준비해 왔다. 스터디 서클은 대학이 주도가 되어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다. 스터디 서클은 원래 19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발전 도구로 기능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에 참정권을 부여하고 자율적 교육을 허용했다. 이는 스웨덴 민주 사회 형성의 초석이 되었다. 스터디 서클은 20세기 초 몇 가지 사회 운동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금주 운동, 국교 폐지 및 종교적 자율성 획득 운동(free church movement), 노동 운동, 도서관 확산, 대학과의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스웨덴에서 스터디 서클은 이제 국민들의 생활의 일부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스터디 서클 운동은 대학의 평생 학습화 운동이 그 학문적인 토대가 됨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 Ⅳ. 대학의 봉사 기능 강화

대학과 지역 사회의 여러 평생 교육 기관들간의 연계는 열린 고등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병원, 양로원, 컴퓨터 등 지역 사회 조직이 대학의 각종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적으로 연계한다면 대학의 각종 교육 자원의 활용성을 지역 사회에서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마치 지역 사회의 평생 학습 센터나 학습자들의 학습 장을 진단하고 치

료해 주는 평생 학습 클리닉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일은 국·공립 대학이 모든 이를 위한 열린 평생 교육 센터로 지역 사회에 자리잡음으로서 더욱 더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 병원을 예로 든다면, 병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병과 환자 관리법에 대한 차별화된 평생 학습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병원의 학습 활동에 의료 관계자뿐 아니라 환자들의 참여율도 높다. 강좌의 강사도 대부분 대학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내에서의 강좌와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이런 강습들은 강좌 개설의 주체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의 학점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각 사회 단체의 학습이 대학의 학점과 교환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점 교환을 지원하는 사회 단체의 강좌를 평가하고, 최소 요건을 제시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더 진보된 계속 교육 과정을 대학 내에 설치하여 이들을 고등 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미니 대학 설립 운동 역시 대학의 개방화를 촉진하는 사회 봉사 기능의 새로운 시도이다. 미니 대학 운동은 학습자들에게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학습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게 만드는 사례이다. 방학이나 야간의 휴면 대학 시설을 이용한 각종 미니 대학의 개설은 다양한 집단을 고등 교육 기관에 흡수시키며, 그들의 참여를 증가시킨다. 이런 미니 대학은 성인 학습자들과 전일제 혹은 시간제 등록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습자를 다양하게 분포시킴으로써, 고등 교육이 한 세대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가 함께 학습하는 장으로 공유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미니 대학은 무엇보다도 "세대간 의식 소통"을 촉진하게 도와 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을 자존감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지역 공동체 내에 설치된 미니 대학에서 연장자와 연소자가 서로 학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학습의 관계는 보호 관계, 사명 관계, 자격 관계,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 보호 관계는 동일한 수업을 배우면서도 '큰 아동'인 성인 집단이 '어린 아동'인 청소년 집단을 돌보는 관계를 의미한다. 반면, 사명적인 관계란 신·구세대가 동일하게 공동체를 키워 나가야 한다는 가치 공동체 완성을 위한 상호 학습 관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자격 관계는 지식·경험을 더 갖고 있는 연장자가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가르치는 상보적인 학습 보완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파트너 집단 관계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 자기의 학습 유형에 맞는 학습 집단을 형성하고 토론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들 중에서 성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공동체적인 학습 관계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세대간의 문화 교류와 단절된 의사 소통을 촉진해 준다. 세대간 의사 소통 촉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간의 의식 소통 관계이다. 상보적인 학습 관계가 성인 세대와 신세대간의 새로운 만남을 촉진하는 "의식 소통"을 가능하게 도와 준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 속에서의 미니 대학의 개방화는 지역 공동체 문화 건설의 촉진제이다. 자신의 의식이 타인의 경험에서 동일한 감정의 메시지를 생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식의 소통을 느낀다. 이것은 동일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감적 지각과 상호 이해가 형성될

때 가능한 일인데, 미니 대학의 개방화가 바로 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 V. 성인과 노년층을 위한 대학의 개방화

전 생애에 걸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대학으로 하여금 성과 연령,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 교육 기관으로 확장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인들의 성인 교육이다. 노인들의 성인 학습 욕구는 전문 노인 학습 센터, 지역 사회 센터, 혹은 양로 시설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1970년 이후에는 대학이 노인들의 성인 교육에 적극 활용되었다. 노인들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학습을 위해 대학의 각종 자원이 활용되었다. 대학의 교수, 강의실, 실습실, 기숙사, 학생 휴게실 등이 노인들의 학습을 위해 제공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엘더호스텔(Elderhostel)'과 프랑스 등지에서 발달된 '제 3세대 대학(U3A :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은 노인들의 성인 교육을 위해 대학이 활용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외에 '방학 대학(Vacation University)' 등의 프로그램도 있으나, 아직은 일반화되고 있지 못하다. '엘더호스텔'과 '제 3세대 대학'은 대학 캠퍼스를 기반으로 실시되며, 학점 비취득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습자들은 시험을 치지 않고 자신들의 흥미와 요구에 의해 자유롭게 학습한다. 양자는 모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U3A는 제 3의 연령자들을 위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때 연령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의 연령은 사회적 개념이다. 연령은 생물학적 경과를 지칭하는 숫자적 개념으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인간의 성장 단계를 구분하곤 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인간의 다른 능력도 같은 속도로 쇠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노화

“

전 생애에 걸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대학으로 하여금  
성과 연령,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평생 학습 교육 기관으로 확장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인들의 성인 교육이다.

”


를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사회적 과정으로 보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이것을 노년의 평생 학습에 응용하였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연령을 몇 살로 나누기보다는 제1 연령기, 제2 연령기, 제3 연령기, 제4 연령기로 구분한다. 이런 연령 구분은 사회적 삶의 주기를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다. 제1 연령기는 아동기 및 사회인으로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제2 연령기는 가족을 부양하고 노동을 하는 시기이며, 제3 연령기는 퇴직 후의 생활로 적극적인 독립 생활 시기이다. 제4 연령기는 의존적 생활기로 삶의 과정에서 쇠락기를 의미한다. U3A 평생 학습은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피에벨라(Pierre Vellas)가 University of the Third Age를 제안했다. Vellas는 프랑스 노인들이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 역시 젊은이 못지 않게 생활의 활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 노인들의 개인 개발 기회 제공, 노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노인 평생 교육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U3A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U3A를 위해 정부는 법 제정을, 기업은 재정 부담 즉, 노인을 위한 학습료 지불을 맡았다. 대학은 노인을 위한 고등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즉, 1968년 프랑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법으로 명했다. 이로 인해 대학은 평생 교육 체제로 그 구조와 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바로 U3A도 이런 개편 중의 하나로, 노인들을 위한 성인 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68년 프랑스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학 문호 개방법 제정에 이어, 1971년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대학 차원의 평생 교육을 위해 직원 봉급의 1%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U3A가 탄생하였다. 최초의 U3A는 1973년 퇴직자들의 자기 주도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 100명의 학습자로 시작된 U3A는 10년 후 10만 명으로 증가했다. U3A는 1973~1975년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에서도 설립되었고, 1975년에는 스위스와 폴란드에도 설립되었다. 영국은 1980년에, 미국은 1990년에 설립했고, 현재 약 18개국에서 U3A 교환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다.

U3A가 유럽에서 시작된 이래, 1975년 미국의 대학들은 엘더호스텔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설을 이용한 노인들의 성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식 고등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었다.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은 노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 1달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고등) 교육의 기회를 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형태는 덴마크의 공민학교(Folk High School)의 프로그램과 Youth hostel의 운영 방식을 결합한 형태이다.

엘더호스텔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국의 프로

그램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엘더호스텔은 여름 방학 기간 중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며, 뉴햄프셔 주의 각 대학들은 여름 기간에 약 2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엘더호스텔에는 50여 개국 236,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에 유스호스텔의 저렴한 비용과 여행이라는 개념을 결합시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엘더호스텔은 방학 기간 중 대학의 캠퍼스에 보통 1주일 정도 기숙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여행까지 겸비하게 하고 있다.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은 대학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참가자들은 최소한 비용을 지불한다. 일례로 일주일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은 \$275이며, 이 비용은 기숙사 사용료, 식사비, 3개 강좌 수강료, 과외 활동 비용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의 특성은 네트워크식의 접근이라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1주 정도 배우다가 다시 다른 대학 캠퍼스로 옮겨가며 배우게 된다. 1975년에는 미국에서 단지 5개 대학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1981년에는 406개 대학이 40,000명의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고등 평생 학습 코스를 제공하기에 이르

렀다. 이제는 세계 45개국 1,300개의 대학들이 성인 교육 기관들과 더불어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165,000명의 학습자가 매년 등록하고 있다.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주로 중산층의 전문직 퇴직자들인데, 이들은 고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자기들의 직능 개발에 여념이 없다. 노년층의 학습자들에게 대학을 개방하는 것 같은 모든 이를 위한 고등 교육의 개방은 바로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선진화된 대학 교육 정책 중의 한 프로그램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제 대학 교육은 더욱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 한준상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중이며, 저서에 『Lifelong Education』, 『호모 에루디티오 : 성인 교육의 사상적 토대』, 『한국 대학 교육의 희생』 외 다수가 있다.